

정의를 위한 총회

캐런 랜즈다운 박사, 대주교 캐나다 연합교회 2025년

10월 18일

의장님, 총무님, 임원진 여러분, 내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두 달 전 저는 캐나다 연합교회 의장으로서의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직책을 맡은 두 번째 원주민이자, 이 방식으로 섬긴 최초의 원주민 여성입니다. 저는 캐나다 서부 해안 브리티시컬럼비아 중부 연안에 위치한 헤일츠크 원주민 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신체적·문화적 학살의 생존자들입니다. 오늘 그 역사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헤일츠크 인구는 25,000명에서 35,000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주로 천연두와 인플루엔자로 인해 몰살당해 20세기 초에는 생존자가 40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99.99%가 한 세기 만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총회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 세계 원주민들은 인내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제 사촌 아일라는 인내가 가장 과소평가된 원주민 가치라고 말합니다. 워크북에서 전략 프로그램 기획위원회는 회원 중 일부가 2025년에 우리의 증언을 인내로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느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낙관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워크북에 묘사된 것처럼 세상이 정말 그렇게 암울한가? 그렇다면 인내가 정말 올바른 대응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전 세계 원주민들은 500년 넘게 문화적, 신체적, 영적, 환경적 억압의 무게 아래서도 곳곳이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지역적·세계적 억압 체계에 의해 가장 주변부로 내몰린 이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증언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 모두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삶을 개혁해야 한다는 믿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주민 자매이자 원주민 워크숍 공동 진행자인 제네 피터는 이 개념을 낭만화된 기독교적 관념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 원주민들은 실제로 억압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개혁과 변혁을 요구하는 훨씬 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의 위한 언약' 개념 노트에 매우 간결하지만 심오하게 명시된 바와 같이: 여기서는 모든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원주민화하거나, 예배와 다양성 축하 행사에서 원주민 문화를 부각시키는 데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나, 세계의 사회적·정치적·환경적·경제적 변화를 옹호하는 방식을 탈식민화하는 데 주목한 교회는 훨씬 적습니다.

원주민의 사상, 우주관, 문화는 우리의 정치적·환경적·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때까지는 좋은 아이디어로 여겨진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구식이고 이교적이며 비현실적이거나 무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진실은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창조된 질서 전체의 선함에 더 균형 잡히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점이다.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농업 기업, 광업, 제조업 또는 자원 착취를 촉진하기 위해 생태계의 무분별하거나 만연한 파괴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단순히 무제한으로 지구의 천연자원을 인출하는 ATM으로 보는 경제 모델을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가 군사력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맞서는 싸움은, 특히(단순히 남반구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행복한 결말을 보기 드문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현재의 궤도에서 근본적으로 전환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 특히 주식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교회들은 주주들을 유일한 고려 대상이거나 가장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전략적 투자 철회, 불매 운동, 주주 행동주의를 고려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모든 회원 교회들은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 노후화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물 채굴 열풍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 업그레이드 가능한 하드웨어 대신 계획된 노후화로 설계된 장비로 더 디지털화된 세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술 하드웨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알루미늄, 카드뮴, 코발트, 리튬, 금 및 기타 귀금속이 무한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전략적인 환경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종종 교회들은 항공 여행 제한에 집중하지만, 항공 여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고작 2%에 불과합니다.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난방/냉방을 하는 방식이 화석 연료 사용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건물 운영이 온실가스의 27%, 건축 공정이 14%, 도로 운송이 12%를 차지합니다. 또한 우리는 탄소 시장이 원주민과 지역사회 주도 탄소 기여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도록 전환해야 합니다. 글로벌 남반구에서 소외된 원주민 및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동반하는 녹색 개발 사업이 아닌 방향으로 말이죠.

미래 비전을 그릴 때 원주민 세계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 연결된 생명의 복잡한 그물망에 대한 이해는, 우리 존재의 이 시기를 '자본세(Capitalocene)'로 특징짓는 무제한적 신자유주의 말기 자본주의로부터 우리가 재형성되고 개혁되도록 돕는 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책임감 있게 채굴하는 방법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훨씬 더 느리긴 하지만요. 우리 선조들은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 징후를 감지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풍요롭게 제공하는 가운데 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화 이전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출애굽기 16장)를 살아가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지구 모두에게 더 나은 길입니다.

원주민 개념 문서에서 우리는 '도넛 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지지합니다. 이 용어는 분명히 매우 경박해 보이지만, 지구 경제 시스템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진지한 대안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가 인간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외부화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도넛 경제학 개념은 인간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공간을 창출하는 정치적·환경적 경계 내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생명체가 번성하는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자본주의가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라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ではありません. 진실은 우리가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마케팅하는 데 기반을 둔 경제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 기업들은

그 상품들에 대한 욕망을 제조합니다. 우리 회원 교회들이 이 교제와 다른 에큐메니컬 기구를 통해 이미 보유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번영의 비전을 창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번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양질의 의류, 내구성이 뛰어나고 에너지 효율적인 주거 공간, 가능한 한 탄소 중립적인 대중교통, 윤리적이고 오래가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 소비자 생성형 인공지능처럼 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규제?"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 그러한 삶의 비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옹호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다른 질문들은 무엇일까?

파괴적인 경제-환경 체제의 종식을 위한 원주민의 주장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원주민 신학자들이 모든 원주민 신학은 정치 신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학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